

## 북한 작가 반디의 『고발』 영역본을 통해 본 번역가의 가시성\*

이동해 · 성승은  
(한국외대)

### 1. 서론

본고는 재북 작가 반디의 작품 『고발』의 영어 번역서인 *The Accusation*에서 드러나는 번역가의 가시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반디의 『고발』은 북한 체류 작가의 작품이 처음 북한 밖으로 반출된 사례로 세계 27국으로 번역되면서(도희윤 2018) 큰 반향을 일으켰다. 조갑제닷컴에서 2014년에 처음 출간되었을 때는 반응이 크지 않았으나, 불어 번역서에 이어 영어 번역서가 출간되면서 유럽의회 안드레이 사하로프 인권상, 미국 아스펜 문학상 후보에 오르고, 영국의 펜(PEN) 번역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 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고발』의 영어 번역서는 최근 일련의 번역상 수상으로 관심을 모은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번역하여 더 주목을 받았다. 그는 영미권 독자의 수

용성을 중시하며 가독성이 높은 유창한 번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신 2016; 신혜정 2017; 조의연, 조숙희 2019). 그의 번역을 분석하면 원문 대비 번역 변이(translation shift)가 많이 발견된다(김영신 2016; 마승혜 2017; 이지민 2018). 따라서 이 작품의 영어 번역서 *The Accusation*은 번역가의 가시성 고찰에 좋은 텍스트이다.

번역가의 가시성이란 베누티(Venuti 1995)가 처음 주창한 것으로 거칠게 표현하자면 번역서에서 번역가의 존재가 드러나는 정도이다. 번역가가 자신의 존재를 더욱 드러낼 것을 강조한 베누티의 주장은 이후 많은 가시성 논의를 촉발하였다. 번역가의 가시성은 텍스트 내에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번역가 후기/서문, 매체 인터뷰와 같이 곁텍스트(paratext)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번역가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번역가의 가시성을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원서와 번역서를 비교하여 텍스트 상에서 가시성을 고찰하는 방법, 번역후기/서문, 매체 인터뷰 등과 같이 곁텍스트를 고찰하는 방법, 번역가의 사회적 활동이나 번역서 출판과정에서 관련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텍스트에서 번역가의 가시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가 불가피하며, 번역가의 구체적인 개입 양상을 통해 가시성이 드러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발』과 *The Accusation*의 텍스트 전체를 비교하여 번역가의 가시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모든 번역은 번역가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Hatim and Mason 1990: 11) 텍스트 내적 가시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번역가의 생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텍스트 내에서 드러난 가시성이 곁텍스트에서 번역가가 언급한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즉 번역가 곁텍스트는 텍스트에 나타난 번역가 가시성을 더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북한에 체류하는 작가의 작품이 세계에 알려진 첫 사례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발』의 번역은 물론 이 작품에 대한 연구도 아직 미미하다. 북한 문학작품으로 『고발』을 다룬 논문은 2편으로(박덕규 2018; 이상숙 2018), 이들 논문은 번역은 다루지 않고 있다. 『고발』의 번역을 다룬 논문은 1편(이지은 2018)이 있으나 일부 사례만 단편적으로 언급한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에 대부분 낯선 세계로 느껴지므로 북한 작가의 글을 번역하는 데에 번역가의 개입은 일면 불가피하다. 북한 내부의 실상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고발』 원고가 북한에서 반출된

\* 본 연구는 2019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후 조갑제닷컴에서 출판된 단행본은 같은 언어권임에도 150개가 넘는 각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동해 2020: 8) 영어로 번역될 때에도 어느 정도 번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데보라 스미스 자신도 영미권에서 북한에 대해 알려진 바가 워낙 없기 때문에 북한 소설을 번역하는 것이 자칫 문학이 아닌 북한 문화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Smith 2017).

본 연구는 최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서에 나타나는 가시성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데보라 스미스에 대한 연구는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The Vegetarian*을 필두로 『소년이 온다』의 영역본 *Human Acts* 등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The Accusation*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이어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 양상을 통해 가시성을 고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텍스트 내적 가시성을 고찰하기 위한 원서와 번역서의 면밀한 비교는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지난한 작업이 되기도 한다. 이에 본고는 텍스트상에서 번역가의 가시성을 살펴볼 수 있는 번역 변이 분류의 틀을 제안하여 향후 번역사의 가시성 고찰은 물론, 번역 전략이나 번역사 문체 고찰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고발』은 불어와 영어를 매개 텍스트로 많은 중역이 이루어진 바, 매개 텍스트 중 하나인 영어번역에 대한 고찰 결과는 이를 저본으로 번역된 텍스트들의 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번역가의 가시성, 개입, 번역 변이

#### 2.1.1 번역가의 가시성과 번역당사자의 가시성<sup>1)</sup>

처음 번역가의 가시성을 언급한 것은 베누티(Venuti 1995)이다. 베누티는

1) 박리라(2019)는 번역이 해당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수용되고 소비되는 양상을 논하면서 번역가뿐 아니라 번역서의 출판사 및 번역 담론의 작성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번역당사자’를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영미권 중심의 번역 문화를 논하며, 원문을 영어로 번역할 때 원문의 문화적 색채를 지우고 가독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여 번역가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성(invisibility)이 팽배함을 비판한다. 번역가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유창성을 담보하는 담화적 지표로 고어 대신 현대어 사용, 특수어 대신 널리 통용되는 영어 사용, 피진어의 사용 피하기 등이 제시되었다(Venuti 1995: 4-5). 그는 번역에서 원문의 언어적·문화적 차이가 드러나게 하고 번역가의 존재를 텍스트에 나타낼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번역가의 가시성을 드러내는 것은 번역물의 가독성을 일부러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예컨대 핼은 베누티의 가시성 개념을 번역가가 텍스트 내에 자신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것, 혹은 번역가가 일부러 유려한 언어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Pym 2011: 97).

본고에서는 가시성을 번역서의 유창성 여부와 관련된 형태적인 측면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형태적 측면은 가독성 저해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내용적인 면은 그러한 비판과 무관하며 또한 원문과 비교하지 않으면 번역가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허먼스(Hermans 1996)나 래시(Lathey 2016: 23)가 말하는 번역가의 목소리와도 일맥상통한다. 허먼스는 번역서에는 원저자 이외에 번역가의 목소리가 항상 존재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우리가 번역서를 읽을 때 마치 원저자의 글을 읽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번역가의 목소리가 늘 함께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세 가지의 경우를 제시한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번역에서는 원문의 내포독자 대신 번역문의 내포독자를 내세우게 되지만, 번역서에서 원문의 내포독자를 지우지 않고 두 번째의 독자를 위해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에 원저자와 번역가의 목소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다의어나 언어유희처럼 자기 반영(self-reflexivity)이나 자기 지시성(self-referentiality)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원서의 문맥에서 외국어가 등장하여 번역 시 문맥이 겹쳐 번역가가 예컨대 각주로 처리하는 경우이다. 래시(2016: 23) 역시 아동문학번역에서 아동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첨가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번역가의 개입을 논하면서 이를 번역가의 목소리라고 표현한다. 본고에서는 텍스트 내에 드러나는 번역가의 목소리를 살펴봄으로써 번역가의 가시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가시성은 형태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며, 반복되는 번역 변이로 인한 번역가의 개입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번역가의 가시성과 번역가 이외에 번역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예컨대 편집자, 출판인 등의 행위자의 가시성을 분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번역물은 번역가 이외에도 번역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는 ‘multiple translatorship’으로 명명되기도 하였으며(Jansen and Wegener 2013), 이 술어의 개념을 기반으로 번역물에 관여하는 편집자, 출판인 등의 주체들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Mälzer 2013; Jansen 2017; Solum 2017, 2018). 그렇다면 번역가 가시성과 번역가 이외에 번역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가시성 구분이 가능한 것일까?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에 대해 수정 과정을 거치며 편집자 등과 협의하게 되므로 번역 텍스트는 번역가 혼자만의 결과물은 아닐 것이다. 솔럼(Solum 2017)은 노르웨이에서 번역에 관하여 큰 화제를 일으킨 3건의 번역 논쟁을 통해 번역물은 번역가 한 사람의 산물이 아니며 편집자, 출판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협업임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번역가는 물론 그 외 번역 생산에 참여하는 이들의 가시성 역시 보여준다. 그는 또한 번역가가 자신의 번역에 대한 카피 에디터(copy editor)의 수정 제안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는지를 조사하기도 하였다(Solum 2018). 얀센(Jansen 2017)은 번역서가 출판되는 단계를 나눠 각 단계에서 어떠한 협업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말저(Mälzer 2013)는 문학 번역가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번역가가 수행한 번역에 대해 편집자의 개입 정도를 논하였다(Batchelor 2018). 이러한 연구들은 번역가 이외의 번역당사자들이 번역 작업에 깊이 참여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번역가의 가시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최소한 텍스트상에서는 번역가를 번역서의 중요한 주체로 본 것이다. 엘브스타드 외(Alvstad, Greenall, Jansen and Taivalkoski-Shilov 2017: 3)는 번역가를 무대 위의 연주자로, 그 외 번역에 관여하는 주체들은 무대를 둘러싼 제작팀, 즉 감독, 기술자, 무대담당자 등으로 비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번역자 이외의 번역당사자들도 최종 번역 텍스트의 생산에 기여하지만 번역 텍스트에서는 번역자의 가시성이 그 외 참여자들의 가시성보다 더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핼(Pym 2011)은 번역가의 가시성 개념을 텍스트상에서 뿐만 아니라 결텍스트 및 사회적 맥락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차원의 가시성을 논하는지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한다. 코스키넨(Koskinen 2000: 99)

은 번역가 가시성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텍스트내적 가시성(textual visibility)은 텍스트 차원에서 번역가의 모습이 드러나는 양상으로 베누티가 주장하는 이국화 전략은 주로 이 차원의 가시성이다. 결텍스트적 가시성(paratextual visibility)은 번역물에 번역가의 이름이 제시되는 것부터 번역가의 후기/서문 등과 같이 결텍스트에 번역가가 드러나는 정도이다. 텍스트외적 가시성(extratextual visibility)은 번역가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텍스트내적 가시성이나 결텍스트적 가시성이 번역물에 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 번역가 개인의 위상이 더 강조된다.

### 2.1.2 번역가의 개입과 번역 변이

그렇다면 번역가의 가시성은 텍스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본고는 허먼스나 래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가의 ‘개입’으로 번역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경우를 가시성의 구현으로 보기로 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예들 이외에도 번역가의 개입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즉, 번역가의 개입은 번역 변이(translation shift)의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Ayyad and Pym 2012). 아야드와 핼은 변이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번역가의 개입으로 볼 수는 없으며 변이에 패턴이 보일 때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증진과 관련된 영어 문서의 히브리어 번역과 아랍어 번역을 비교하면서 변이의 패턴이 드러나고 동기가 분명한 경우를 개입으로 보았다.<sup>2)</sup>

번역 변이는 “원천 언어에서 목표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대응이 깨지는 현상”(Catford 1965: 73)으로 정의된다. 이는 다시 ‘의무적 변이(obligatory shifts)’와 ‘선택적 변이(optional shifts)’로 구분되는데, 본고는 가시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언어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필수적 변이인 의무적 변이를 제외하고 번역가에게 선택의 상황이 주어지는 선택적 변이를 연구 대상

2) 번역가의 개입을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아서 번역 자체를 개입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예를 들어 니란자나(Niranjana 1992)는 ‘개입주의자’로서의 입장을 논하는데, 이것은 수용 문화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원천 문화를 조작하는 것이다. 티모츠코(Tymoczko 2000)는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번역을 논하며 사람들을 일깨우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발화행위로서의 번역을 거론한다. 그는 아일랜드가 영국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번역을 통해 문화적 회복을 이루어낸 역사를 사례로 들고 번역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이 아일랜드 독자가 행동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으로 삼는다.

번역에 나타나는 번역 변이와 관련하여 이를 규명하고 범주화하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니다(Nida 1964)가 제시한 텍스트 조정 기법(text adjustment techniques), 비네와 다블네(Vinay and Darbelnet 1958: 30-41)의 7가지 유형론, 몰리나와 우르따도-알빌(Molina and Hurtado-Albir 2002: 511)의 19가지 기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주화가 있다. 이 중 니다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니다의 텍스트 조정 기법 (Nida 1964: 226-39)

첨가(addition)	삭제(subtraction)	변경(alteration)
생략된 표현 첨가	반복 삭제	구성요소의 순서 변경
내포된 의미 명시화	지시대상 구체화 삭제	구/절의 구조 변경
수사의문문 대답 첨가	접속사 삭제	개별 단어 의미 변경
분류사/접속사 첨가	이행어 삭제	외심적 표현 의미 변경
의무적인 구체화	정형화된 문구 삭제	소리 변경
문법 구조를 위한 첨가	범주 삭제	범주 변경
목표 언어 범주 추가	호격 삭제	품사 변경
이중어 첨가		

니다는 텍스트 조정 기법의 목표가 원문과 형태적, 의미적, 양적으로 같은 번역문을 생산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니다의 분류는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분류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첨가·삭제·변경에 대한 체계적인 하위 구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뫼(Pym 2018)의 번역 솔루션 유형론(Translation solution typologies)을 차용하였다. 뫼는 여러 학자의 번역 유형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비판을 반영하여 다양한 언어 쌍에 적용 가능한 분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유형론을 발표하였다.<sup>3)</sup>

3) 그가 처음 번역 솔루션 유형론을 제시한 것은 2016년 그의 저서(Pym 2016)에서이나, 이후 2018년에 수정을 거친 유형론을 다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차용한 것은 수정한 2018년 버전이다.

〈표 2〉 번역 솔루션 유형론 (Pym 2018: 45)

범주	솔루션 유형	양상
복제 (copying)	단어 복제 (copying words)	copying sounds copying morphology ..
	구조 복제 (copying structures)	copying prosodic features copying fixed phrases ..
표현 변화 (expression change)	관점 변화 (perspective change)	changing sentence focus changing semantic focus ..
	밀도 변화 (density change)	generalization/specification explicitation/implicitation ..
	재배열 (resegmentation)	joining/cutting sentences re-paragraphing ..
	보상 (compensation)	new level of expression new place in text ..
	문화적 대응 (cultural correspondence)	corresponding idioms ..
내용 변화 (material change)	텍스트 조정 (text tailoring)	omission of material addition of material ..

뫼의 분류는 3가지의 대분류 아래 더 구체적인 분류가 이루어지고 또 그 아래에 소분류가 있는 구조여서 필요에 따라 더 단순하거나 세분화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가장 큰 범주는 복제와 표현 변화, 내용 변화로 구성된다. 복제에는 ‘단어 복제’와 ‘구조 복제’가 하위 항목으로 존재한다. 표현 변화는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내용적 맥락이 추가되지는 않지만 TT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변화한 경우이며, 내용 변화는 텍스트의 목적과의 관련성에 따라 본문에 내용이 새로 삽입·삭제되는 등으로 변화한 경우이다. 표현 변화의 하위 항목에는 ‘관점 변화’, ‘밀도 변화’, ‘재배열’, ‘보상’, ‘문화적 대응’이 있고, 내용 변화의 하위 항목에는 ‘텍스트 조정’이 포함되고 내용이 삭제되는 경우와 추가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니다의 단순한 분류에 뫼의 유형론을 접목하여 완성한 분류 체계는 아래의 <표 3>과 같다.<sup>4)</sup>

〈표 3〉 텍스트 분석을 위한 분류 체계

구분	유형론	양상		
		첨가	삭제	변경
복제	복제	N/A	N/A	N/A
표현 변화	관점 변화	N/A	N/A	초점 변경
	밀도 변화	의미 첨가/강조 묘사 첨가/구체화	의미 삭제/약화 묘사 삭제/단순화	표현 변경
	문화적 대응	표현 풀이 단어 풀이	각주 삭제	
	재배열 <sup>5)</sup>	문장 흐름 표현 첨가	문장 흐름 표현 삭제	순서 변경
내용 변화	텍스트 조정	내용적 맥락 첨가	내용적 맥락 삭제	메시지 변경

위 표에서 가로축은 첨가·삭제·변경으로 니디의 분류가 반영되었고, 세로축에는 각각에 대해 펴의 유형론으로 하위 분류가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번역 변이를 살펴볼 것이다.

## 2.2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에 대한 선행연구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는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서 *The Vegetarian*으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면서 학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채식주의자』와 그 번역을 다룬 학술논문은 23편, 『소년이 온다』와 그 번역을 논한 연구는 4편 찾을 수 있었다.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은 대체로 독자에게 수용이 가능하고 유창한 번역

- 4) 표에서 빈칸으로 제시된 항목은 예비적 코딩 결과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부분으로, 본격적인 코딩에서도 해당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빈칸으로 남겨두었다.
- 5) 펴의 경우에는 번역가의 수고 이론과 함께 설명하기 위해 유형론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관점 변화, 밀도 변화, 재배열, 문화적 대응, 텍스트 조정으로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순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순서를 조정하였다. 보다 더 간단한 분류 체계의 완성을 위해 발생 빈도가 적었던 표현 변화의 하위 항목 ‘보상’은 본 연구의 분류 체계에서 삭제되었다.

을 수행하여 원문의 효과를 영미 독자에게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의연, 조숙희(2019)는 그의 번역을 영미 독자에게 수용되고 원작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창조적 다시쓰기’라고 하였고, 신혜정은 “번역이 아닌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으로 방향을 설정한 현지화 텍스트”(2017: 657)로 보았다.

원문과 번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번역서에서는 원문 대비 첨가, 삭제 및 의미 변형이 발생한다(김영신 2016; 마승혜 2017; 이지민 2018).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을 비교한 이지민(2018)의 연구에서는 삭제 전략만 따로 고찰하였는데 문화적 관용어의 삭제, 반복 회피를 위한 삭제, 플롯의 단순화를 위한 삭제, 등장인물의 평면화를 위한 삭제, 꿈과 현실의 구분을 위한 삭제, 작품의 내적 일관성을 위한 삭제 등이 관찰되었고 이에 따라 소설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이 관찰되었다. 체계기능언어학을 적용한 마승혜(2017)의 연구에서는 통사구조를 원문과 다르게 변형하고 다양한 평가어를 활용하여 감정을 명시화하는 전략과 접속어와 동일 어휘를 활용하여 응결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독자 수용성이 제고되었다. 이같은 번역에 대해 기술적으로 논한 연구도 있으나, 오역을 비롯하여 원문을 훼손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이인규 2017).

스미스는 자신의 번역에 대해 쏟아지는 다양한 비평과 비판에 대해 만약 자신이 다시 『채식주의자』를 번역한다면 이는 ‘다르게 실패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조의연, 조숙희 2019).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조의연, 조숙희(2019: 203-204)는 스미스는 ‘실패하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자신의 번역에 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번역은 창조적 다시쓰기라는 자신의 번역관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번역관은 유창성을 중시하는 영국의 번역 규범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를 보면 데보라 스미스는 가독성을 중시하는 수용 문화 중심의 규범을 따르고 있으며, 원문의 어휘나 문장 하나하나에 충실한 번역보다는 원문의 효과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이는 곧 텍스트상에서 번역 변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 텍스트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후 4장에서는 실제 『고밭』의 번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 2.3 북한 문학 속에서의 『고발』

『고발』은 북한 문학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북한 문학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문학으로 작가의 창조성보다는 북한 사회에서의 임무가 우선시되며, 문학의 예술적인 관점보다는 이념 수단의 실현을 위한 관점이 중요하다(전영선 2014). 즉, 북한체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기관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충실한 문학이므로 북한 문학은 체제의 선전을 위해 창작되고 유통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고발』은 북한에서 창작되었으나 북한체제를 정통으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북한 문학과 다르다.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은 탈북작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지만, 반디는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탈북작가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발』은 북한 문학이지만 북한의 체제를 위한 목적에 충실하지 않으며, 탈북문학의 범주에 들지는 않으나 그 내용이 북한체제의 고발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탈북문학의 특징을 담고 있다.

『고발』은 또한 북한에서 반출된 이후 세계 27개 국가에 번역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 문학의 해외 번역이 미미한 상황을 생각할 때 『고발』이 북한 문학에서 모호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로 번역이 되었다는 점은 향후 북한 문학의 번역이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지은(2018)은 『고발』이 처음 출간된 조갑제닷컴 판본, 이후의 출판사인 다산책방 판본, 그리고 영어 번역서를 비교하면서 이 세 버전은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에서 서로 다른 책이라고 강조한다. 조갑제닷컴 판본은 반공서사에 초점이 이루어졌으며, 영어 번역서가 출판되고 영국 펜 번역상을 수상한 이후 다시 출판된 다산책방 판본에서는 이전의 반공 이데올로기 대신 북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다. 한편 영어 번역서는 북한의 가난을 강조하고 ‘은밀한 독재자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생산하며, 전체주의 스펙터클에 초점이 맞춰져서 세 판본은 모두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지은(2018)의 영어 번역서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맥락에서 텍스트의 일부만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본고는 『고발』과 *The Accusation* 전체를 모두 비교하고자 한다.

## 3. 분석 대상 및 연구 방법

### 3.1 분석 대상

본고에서는 2014년 조갑제닷컴에서 출간된 반디의 『고발』과 서펜트스 테일(Serpent's Tail)에서 출간된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서 *The Accusation*을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 내적 가시성을 검토한다.<sup>6)</sup>

『고발』은 총 일곱 편의 단편 소설이 삽입된 소설집으로, 북한에 사는 주인공이 겪는 연좌제에 의한 차별, 사상 검열 및 통행 제한 등의 사건을 통해 북한의 허위와 체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텍스트 분석에는 상기 총 일곱 편 모두를 포함해 분석을 진행한다. 지면상의 이유로 일곱 단편의 줄거리를 상세히 제시하지 않고, 4장에서 사례를 살펴볼 때 이해에 필요한 줄거리를 함께 제시한다.

### 3.2 분석 방법

#### 3.2.1 텍스트 분석

본고의 텍스트 분석의 대상이 된 ST와 TT는 일곱 단편에 속한 모든 문장으로, 분석을 위한 텍스트 수집 및 정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을 활용하였다. 수집한 텍스트에서 번역가의 개입을 살펴보기 위해 코딩(coding)을 활용하였다. 코딩은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으로, 정성적 연구에서 코딩은 내용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Saldanha and O'Brien 2014). 광범위한 데이터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들끼리 묶어내는 과정에서 이들 특성이 드러나는 라벨(label)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라벨은 주로 그룹화된 데이터의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부여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분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 차원의 1차 코딩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수록된 단편인 「탈북기」

6) 국내에 출간된 반디의 『고발』은 조갑제닷컴 판본과 다산책방 판본의 두 종이나,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서 *The Accusation*의 저작권 페이지에 명시된 원본은 조갑제닷컴 판본이다.

의 100문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1차 코딩 결과로 나타난 양상을 큰 범주로 묶어 정리하여 분류 체계의 기반을 완성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아래의 단계를 거쳐 텍스트 분석이 진행되었다.

- 1) 펴(Pym)의 번역 솔루션 유형론을 참고하여 분류 체계 완성
- 2) 완성된 분류 체계에 따라 2차 코딩 진행

완성된 분류 체계를 활용한 본격적인 코딩은 <그림 1>처럼 진행되었다. 먼저, 첨가·삭제·변경 등에 대해 제각기 코드를 부여(7)한 다음, ‘첨가/삭제/변경’ 셀에 나타난 양상에 따라 코드를 기입하였다. 그런 다음, 가령 첨가에 해당하는 문장은 ‘첨가’ 셀 아래에 미리 부여한 코드(8)를 입력하게 된다.

그림 1 텍스트 분석 시 코딩 사례

ST 조감계정항목	TT 데보라스미스 번역본	첨가/삭제/변경	첨가	삭제	변경
그는 흔한 동작으로 허리춤에서 포승줄을 잡아채 풀어내더니 그것으로 제각 사형수를 묶으며 놓았다.	Grabbing a looped rope from his belt and stretching it out in a swift, practiced motion, he used it to bind the struggling criminal <b>even more tightly</b> .	0	0		
얼마 후 연거푸 울리는 요란한 총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찢었다.	Not long afterward, deafening gunshots rang out in quick succession.				
상쾌한 봄 대기 속으로 와역내와 피비린내가 물씬 풍겨왔다.	The metallic scents of blood and gunpowder soaked through the crisp spring air.	0	0		
아득고 트럭 한 대가 부릉거리며 북송이나무 가까이로 공무니를 돌아댔다.	A truck rumbled into the field and backed up close to the peach tree.				
두 명의 안전원이 구두솔이 달린 손칼을 비치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북송이나무에서 새끼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Two security officers used their hand knives to cut the ropes around the tree.	1		1	
그런데 모자관을 턱에 건 안전원만은 맨손으로 아까 그 포승줄을 풀어내더니 띠가 문졌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대강 풍그러 주머니에 속 끌어넣는 것이었다.	But the helmeted officer used his bare hands to untie his rope, stuffing its surely <b>blood-soaked</b> length roughly into his pocket.	3	0	1	
그것이 좀 전에 총상을 들을 때보다도 더 멍청히 사지를 뒹뒹 돌리게 했다.	This made Myeong-chol's limbs tremble even more than the gunshots had.				
그 포승줄은 훗날에도 멍청의 뇌리 속에 남았다.	Afterward, the memory of that rope had haunted Myeong-chol's days, an inevitable image in his dreams on nights when he'd been unable to finish his homework, when he would feel himself pinioned to the bed <b>as tightly as the criminal had been to the peach tree</b> .	0	1		
숙제를 못해거나 학교에서 주는 과외과업 같은 것을 끝내지 못한 날 저녁에는 으레 그 포승줄이 꿈에 나타나 멍청이를 가워 놀리게 했다.	This period in his life marked a change in Myeong-chol; he began to feel ever more cowed and docile, rushing to obey whatever task his teachers or Boy Scout leader might set him.	0	0		

보다 다양한 양상의 개입을 연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차 코딩의 경우에는 니다의 첨가, 삭제, 변경의 큰 범주만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런 다음 나타난 양상을 정리하고, 펴의 유형론을 접목한 <표 3>처럼 2차 코딩을 위한 체계를 완성하였다. 1차 코딩 결과, 복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 7) 첨가는 0, 삭제는 1, 변경은 2, 첨가와 삭제가 함께 일어난 경우는 3, 첨가와 변경이 함께 일어난 경우는 4, 삭제와 변경이 함께 일어난 경우는 5로 코드를 설정하였다.
- 8) 가령, 첨가의 경우 유형 별로 ‘의미 추가 및 강조’는 0, ‘묘사 첨가 및 구체화’는 1 등으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삭제와 변경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로 본격적인 코딩에서는 복제를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 3.2.2 결텍스트의 활용

결텍스트 혹은 파라텍스트(paratext)는 독자를 책으로 인도하거나 혹은 책에서 돌아서게 하는 ‘문턱’이다. 구체적으로는 책의 제목, 앞뒤 표지, 장 제목, 역자 후기/서문, 저자 서문, 각주 등 공간적으로 책을 둘러싼 주변텍스트(peritext)와 저자/역자 인터뷰, 일기, 편지 등 공간적으로 텍스트와 떨어진 바깥텍스트(epitext)를 말한다(Genette 1997: 261-64). 본고에서는 결텍스트 중에서도 번역가가 직접 해당 작품이나 자신의 번역에 대해 밝힌 인터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결텍스트를 텍스트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

텍스트 그 자체만을 분석하기보다 결텍스트를 함께 살필 것을 강조하며 텍스트 분석 연구에 있어 결텍스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그레이(Gray 2015)에 따라, 반디의 『고밭』 번역 이전에 진행한 2편의 인터뷰와 번역 이후에 진행한 4편의 인터뷰, 그리고 반디의 『고밭』 번역 등에 대해 밝힌 기고문 1편을 분석한다. 『고밭』 번역 이전에 진행한 인터뷰는 번역가의 번역관 및 전반적인 번역에 대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이 2편의 인터뷰는 주제가 한정적이지 않아 번역가의 번역관과 번역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밝혔다는 점에서 본고의 분석에 포함하였다. 2편의 인터뷰는 2014년과 2016년 『채식주의자』 번역과 맞물려 각각 한국현대문학(KLTit) 소속 작가 엘리 박(Allie Park), 영국의 작가협회(The Society of Authors)와 진행한 인터뷰이다. 『고밭』 번역 이후의 4편의 인터뷰는 2016년 말 볼륨 원 브루클린(Vol. 1 Brooklyn)과 진행한 것을 빼면 모두 2017년 진행된 것으로, 각각 바바라 지트워(Babara J. Zitwer Agency), 펜 아메리카(PEN America), 그리고 컬처 트립(Culture Trip)과의 인터뷰이다. 1편의 기고문은 2017년 데보라 스미스가 가디언(The Guardian)에 기고한 것이다.

##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텍스트 분석 결과를 정량적 결과와 정성적 결과로 나누어 살펴본 후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 결텍스트와 함께 논의한다.

### 4.1 텍스트 분석 결과

각 단편 소설은 길이가 서로 달라 변이의 절대적인 수치는 상이하나, 전체 문장 대비 변이가 일어난 문장의 비율은 51.4%로 반 이상을 차지했다. 변이 양상의 비율은 일곱 단편 전반에 걸쳐 비슷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나타난 번역 변이의 건수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sup>9)</sup>

〈표 4〉 첨가, 삭제, 변경의 변이 비율 및 실제 건수 정리

	첨가	삭제	변경	합산
「탈북기」	60% (146)	24% (58)	16% (41)	100% (245)
「유령의 도시」	55% (115)	28% (58)	17% (35)	100% (208)
「준마의 일생」	58% (108)	21% (39)	21% (40)	100% (187)
「지척만리」	58% (145)	26% (66)	16% (41)	100% (252)
「복마전」	63% (125)	18% (36)	19% (37)	100% (198)
무대」	62% (152)	23% (56)	15% (38)	100% (246)
빨간 버섯」	58% (201)	21% (74)	21% (73)	100% (348)

첨가는 총 변이 건수에 대한 비율이 60%에 가깝거나 웃돌 정도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텍스트 분석 결과, 번역가는 다양한 기법 중 첨가를 가장 많이 활용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중 첨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폐쇄적인 공간인 북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해당 작품의 특징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삭제와 변경은 비슷하거나 삭제가 조금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첨가와 삭제, 변경의 하위 항목 변이 양상을 수치로 확인하고자 한다.

#### 4.1.1 첨가

모든 단편에서 첨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각 단편의 첨가 유형별 발생 건수를 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편의 순서는 왼쪽부터 「탈북기」, 「유령의 도시」, 「준마의 일생」, 「지척만리」, 「복마전」, 「무대」, 「빨간 버섯」으로, 표에서는 숫자로 표시하였다.

9) <표 4>의 괄호 안의 수치는 실제 변이 발생 건수이다.

〈표 5〉 첨가 유형 별 정리 (단위: 건)

범주	항목	1	2	3	4	5	6	7	합산
표현변화	의미 추가 및 강조	48	30	33	56	62	50	87	366
	묘사 첨가 및 구체화	56	79	48	85	39	97	93	497
	문장 흐름 첨가	17	0	11	0	10	0	10	48
	표현 풀이	2	1	2	0	1	1	0	7
	단어 풀이	4	4	2	2	3	3	1	19
내용변화	내용적 맥락 추가	19	1	12	2	10	1	10	55
	합계	146	115	108	145	125	152	201	992

이러한 수치로 알 수 있는 것은 번역 과정에서 배경지식이나 사건 관련 내용을 새로 추가하기보다는 의미 및 묘사의 첨가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특히 의미를 첨가·강조하는 경우에 평가어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나 부사가 첨가되었는데 이는 번역가의 판단이 텍스트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묘사의 첨가·구체화의 경우에는 주요 인물의 행위나 배경 묘사를 추가하거나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 4.1.2 삭제

삭제는 첨가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아래의 표는 모든 단편에서 나타난 삭제 유형 별 개입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삭제 유형 별 개입 양상 (단위: 건)

범주	항목	1	2	3	4	5	6	7	합산
표현 변화	의미 삭제 및 약화	16	6	12	23	12	8	21	98
	묘사 삭제 및 단순화	27	38	18	38	20	44	42	227
	문장 흐름 삭제	3	4	0	0	0	0	5	12
	각주 삭제	5	4	2	0	1	4	1	17
내용 변화	내용적 맥락 삭제	7	6	7	5	3	0	5	33
	합계	58	58	39	66	36	56	74	387

표현 변화에서 묘사가 삭제·단순화된 양상은 주변적인 인물의 묘사나 사건에 관한 주변적 묘사에서 주로 나타났다. 중심적 인물의 묘사는 구체화된 반면 주변적 인물에 대한 묘사는 삭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아, 번역가는 ST의 메시

지를 묘사의 첨가와 삭제를 통해 TT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비슷하게 원천 문화를 반영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각주는 TT에서 단순히 삭제되기도 했다.

4.1.3 변경

변경은 삭제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거나, 삭제보다 10~20건 정도 적게 발견되었다. 아래의 표는 단편 별로 나누어 개입의 양상에 따라 발생 건수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7〉 변경 유형 별 개입 양상 (단위: 건)

범주	항목	1	2	3	4	5	6	7	합산
표현변화	초점 변경	11	13	5	7	6	15	12	69
	표현 변경	18	15	24	24	26	13	30	150
	순서 변경	9	2	18	8	13	4	19	73
내용변화	메시지 변경	6	5	1	2	4	6	6	30
합계		44	35	48	41	49	38	71	326

변경은 모든 단편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현 변화에서는 표현 변경이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고, 내용 변화에 해당하는 메시지 변경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령, 표현 변화에서 표현 변경은 비유적인 표현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화한 경우가 포함되었다. 메시지 변경은 아래의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메시지 변경의 사례>

ST 그래서 내가 ‘여자란 자식을 낳지 못해도 나이가 들면 모성애라는 것을 절로 가지게 되는 모양이구나’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말이네. (15)

TT After a while I got to thinking that perhaps the maternal instinct grows even stronger when a woman doesn't have a child of her own, making the most of whatever outlet it has. (2)

ST의 중심 메시지가 TT에서 ‘모성애는 여자가 자신의 아이가 없는 경우에 더욱 강해지는 모양이다(perhaps the maternal instinct grows even stronger

when a woman doesn't have a child of her own)’는 의미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대표적인 메시지 변경의 사례로 본다.

4.2 번역가 개입을 통해 드러난 번역가 가시성

본 소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정량적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 변이의 반복을 통해 나타난 개입이 번역가를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고찰한다. 각각의 소제목에 맞는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4.2.1 북한의 가난한 이미지 강조

분석 결과 나타난 번역가의 변이 중 첨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묘사 첨가 및 구체화’와 ‘내용적 맥락 추가’는 ST보다 TT에서 북한 사회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드러나 이를 개입으로 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북한 주민의 가난함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아래는 「탈북기」에서 주인공 일철의 아버지가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낙인찍혀 그의 가족 전체가 겪게 된 수모를 묘사하는 대목이다. TT에서는 ST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가난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사례 1>

ST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쇠고랑 차고 주소도 없는 그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고 우리는 감나무 푸르던 고향집에서 쫓겨나 (19)

TT Ultimately, he was arrested, hauled off to a place whose location we would never know, while we, his wife and children, were turned out of our home, where we'd often been able to sate our hunger by simply reaching up to pluck a ripe persimmon (6)

ST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하던 ‘감나무 푸르던 고향집’은 TT에서 ‘손을 뻗어 감을 따먹으며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우리 집(our home, where we'd often been able to sate our hunger by simply reaching up to pluck a ripe persimmon)’으로 변해 가난한 일상이 강조되었다.

가난한 처지에 대한 강조는 <사례 2>처럼 TT에 가난에 대한 언급이 추가

되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사례 2>

ST 그렇게 내 아침밥을 남편의 점심으로 남겨놓는 대신 남편이 출근하자 나는 다시 두벌 식사를 끓여야 한다는 것. (40)

TT The food that was meant for me gets saved for my husband's lunch, but I have to boil up some scraps for myself to stave off the hunger pangs. (31)

ST에서 아내는 자신의 식량을 남편의 것으로 남겨두고 ‘두벌 식사’를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TT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목적이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함(to stave off the hunger pangs)’이라고 언급하며 가난한 처지를 부각하였다. 이는 이지은(2018)에서도 언급된 사례로, 아내가 제 몫을 남편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좋지 못한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처지가 강조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다음의 <사례 3>은 「무대」에 등장한 가난에 대한 강조의 양상으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TT에 ST에는 없는 ‘텅 빈 지하실처럼(as an empty cellar)’이 첨가되면서 가난과 배고픔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졌다.

<사례 3>

ST 그보다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배가 썰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우리 중대 가마마차>라는 토막극 대본에 따라 온밤 펄펄 끓는 생선죽과 지지고 볶는 것을 푸짐히 먹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데에 은근히 속이 뒤틀려지기도 했습니다. (196)

TT But worst of all was that I'd been assigned a skit called "The Bottomless Mess Tin," meaning I'd had to spend half the night pretending to be devouring all manner of delicious things while in reality my stomach was as cold and hollow as an empty cellar. (159-160)

반디의 소설이 여타 탈북문학과 다른 지점은, 탈북자의 문학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할 때 단순히 굶주림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갈 때 반디의 소설은 북한의 사회·구조적 문제와 모순에 대한 다채로운 비유와 상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이상숙 2018). 번역서에서 드러난 가난에 대한 강조가 전체 단편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반디 소설 특유의 이러한 다채로운 면을 무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 4.2.2 인물 및 사물 이미지 강조

번역 과정에서 의미의 첨가 및 강조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TT는 ST에 비해 인물 및 사물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더욱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인물이나 사물의 앞에 형용사 및 부사를 수식하여 인물이나 사물을 판단하는데, 의미를 첨가하여 강조하는 양상의 변이는 전체 작품에서 선악 구도를 형성하는 내용상의 강조를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지배층과 관련된 인물이나 사물에는 긍정적인 수식어가 붙는 반면 지배층과 관련된 인물 및 사물에는 부정적인 수식어가 붙어 내포되어 있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다음의 사례에 등장하는 ‘아내’는 피지배층에 해당하는 인물로, 각각 ‘관대하고 다정한(generous and loving)’의 첨가를 통해 긍정적 이미지가 부각된다.

<사례 4>

ST 제발 모든 것이 나의 오해로 끝나게 되었으면...! 그래서 아내가 나의 아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으면...! (23)

TT My only wish was for everything to be revealed as a misunderstanding, and for my wife to remain as she had always been, a generous and loving companion. (10)

반면, 아래의 사례는 지배층을 상징하는 개념에 대한 수식어구가 추가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례 5>의 경우, ‘벽돌집’을 수식하기 위해 TT에서 ‘놀랍도록 선명하고 튀어서 마치 과장된 듯한(startling, conspicuous, almost extravagant)’이라는 수식 어구를 추가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사례 5>

ST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벽돌집’이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는 벽돌이라

는 뜻보다도 빨갳다는 뜻이 더 스머있다고 해야 할 것이었다. (225)

TT Once you took all this into consideration, the innocuous phrase “the redbrick house” necessarily denoted not some ordinary building, but the color red—startling, conspicuous, almost extravagant. (182)

반디의 소설에서 북한체제의 비판을 위해 끌어들이는 주인공들은 모두 일반 북한 주민으로, 이들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북한체제의 억압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특히 「무대」에서는 지배층을 대변하는 인물 역시 일반 주민으로, 지배층에 속한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고민한다. 그러나 이렇게 인물과 사물에 대해 평가하며 선악에 대해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특히 인물의 고민과 회의 등의 심리적 묘사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 4.2.3 문화적 요소 소실

ST에 등장하는 수많은 언어 및 북한과 관련한 문화적 요소가 삭제되거나 일반적인 표현으로 변화하면서 북한만의 제도, 풍속, 언어 등에서 나타난 토속성 및 현장감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ST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독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 고유의 문화적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325 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각주가 삽입되었지만, TT에서는 각주가 전혀 없이 모두 본문에 포함되었다. 그 과정에서 문화적 특수성이 중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10)</sup>

아래의 사례들은 북한 고유의 어휘를 번역에서 살리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변모된 것이다.

<사례 6>

ST 군안전부의 떡매전사들(떡매처럼 생긴 계급 견장을 어깨에 붙인 전사)이 우리집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네. (109)

TT And just then, the military police showed up in their fancy uniforms. (82-83)

10) 엄밀히 말하면 각주는 결텍스트에 포함되지만 각주의 삭제를 통해 본문 텍스트의 변이가 일어났으므로 텍스트 분석 결과에서 소개한다.

<사례 7>

ST 장공장 뒤 언덕에 있는 고인식네 집은 뺨이 기어간 자리인 듯 앞뒤로 배를 내민 울바자(대, 갈대, 수수깡, 싸리 따위로 발처럼 엮어 만든 울타리)며 (235)

TT Situated on the hill to the rear of the factory, the house was surrounded by a rather wonky fence (191)

『채식주의자』 번역에서도 각주는 전부 삭제되었는데, 이는 번역가가 낯선 나라의 이야기가 막힘없이 읽히기를 의도하면서(이강선 2016) 목표 독자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물의 특수성을 보여주거나 북한이라는 배경에 대한 특성 및 문화적 요소를 드러내는 부분이 삭제되거나 설명적으로 일반화되면 『고밭』 전체에 대한 특수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4.3 결텍스트 분석 결과

텍스트 분석 결과, 번역가의 가시성은 주인공으로 대변되는 북한 주민의 가난함을 강조하는 양상, 인물 및 사물의 내포된 성질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양상, 마지막으로 ST의 문화적 요소를 일부 상쇄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3장에서 소개한 결텍스트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인터뷰와 잡지 기고문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주로 번역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북한과 북한 작가 및 문학작품으로서 『고밭』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밭』 번역에 대한 후기였다.

먼저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는 여러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번역관에 대해 밝혀왔다. 한국 현대 문학(KTLit) 소속 앨리 박(Allie Park)과의 인터뷰에서 번역에서는 늘 논의되는 ‘충실성(faithfulness)’의 개념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outmoded, misleading, and unhelpful)”라고 언급하며, 이를 대다수의 영미권 번역가들의 공유된 의견임을 밝혔다. 특히 단어 선정과 문법 구조에 충실한 번역은 독자의 읽기 경험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텍스트 분석 결과 나타난 번역 변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번역가의 번역관으로 보인다.

스미스는 킬처 트립의 에디터 마이클 배런(Michael Barron)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번역은 보통 세 단계로 진행된다고 밝히며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번역 태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번역 시 자신이 할 일은 저자의 의체를 발전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위에서 밝힌 그의 번역관과 함께 살펴보면 그에게 충실성은 단어나 언어적 표현에서 오는 개념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원서와 같은 문학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개념에 가까운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고발』 번역에 대한 내용은 2017년 이후의 인터뷰와 가디언 기고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가디언 기고문에서 번역 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안고 일한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펜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는 반체제 소설의 번역가로서 작품 내의 목소리 중 “어떤 목소리를 증폭시켜 보여주기로 하였는지(the voices we choose to amplify)”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텍스트 분석 결과 나타난 인물 및 사물의 이미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번역가의 주관과 해석을 통해 작품 내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포된 긍정성과 부정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번역이 행해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번역가의 주관과 해석이 담기면서 또 다른 고정관념의 개입이 일어나기도 했다. 스미스는 가디언 기고문에서 자신이 가진 북한에 대한 편견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주류 미디어에서 이치를 모르고 어리석게 그려지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sup>11)</sup> 하지만 텍스트 분석 결과, ST에서 가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부분에서 내용이나 표현이 추가되면서 TT에서 가난이 강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가는 자신이 가진 편견에 대해 저항하면서 번역했다고 밝혔지만, 텍스트에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미스는 작가 반디가 구현하는 문학적 특징과 이의 번역에 대해서도 언급

11) 스미스는 가디언 기고문에서 “주류 미디어가 포착한 북한 사람들의 모습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비에트 시대 스파이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From their caricaturing in mainstream media, we have an idea of what North Koreans sound like: shrill, silly, using Soviet-era cod spy speak)”이라며,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이에 저항하는 것(One of my most important tasks was to resist this)이라고 밝혔다.

하였다. 가디언 기고문에서 스미스는 반디의 『고발』에는 서사를 더 재미있게 하고 등장인물의 일상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다채로운 표현이 존재한다는 점을 꼽았다. 텍스트 분석 결과 ST에서 각주 등으로 실현된 문화적인 요소가 TT에서 일부 재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탈북기」에 등장한 ‘흰 왜가리’와 ‘검은 까마귀’의 결혼처럼 인물 간의 대비되는 신분을 보여주는 비유법이 나, 「준마의 일생」에 등장하는 ‘겨울 해는 중 머리 위 완두콩 구르는 것보다 더 빨리 진다.’는 비유법 등은 그대로 TT에 반영되었다. 2014년 엘리 박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적인 것의 번역에 있어서 문맥(context)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인물이 먹는 식사나 음식에 대해 매번 설명하거나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쓰는 언어 표현으로 이미 명백한 친척 관계에 대해 상세한 각주를 다는 것은 자칫 작품의 문학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문화가 다른 독자의 직관에 의존할 수 있는 표현은 남겨두되, 맥락을 고려하여 목표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의 문화적 요소는 그대로 번역하기보다 목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형용사+상위어’ 등의 형태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 5. 논의 및 결론

본고에서는 『고발』의 영어 번역서 *The Accusation*를 대상으로 번역가의 텍스트 내적 가시성을 분석하고, 텍스트 분석 결과를 곁텍스트로 확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텍스트 분석 결과, 원서와 다르거나 특정 이미지가 강조된 방향으로의 개입이 확인되었다. 먼저, 번역서는 원서보다 인물의 가난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명시적인 이미지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향으로의 변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데보라 스미스의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번역가 가시성으로, 『채식주의자』 번역에서 평가어를 활용하여 인물의 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마승혜 2017). 또한 북한의 문화적 특수성을 띠는 용어가 일반화되면서 원서보다 토속성 및 현장감이 약화되었다. 번역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방향의 번역가 가시성은 저자의 의도와 다른 의미를 생

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인터뷰 및 기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은 번역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북한 문학으로서 『고밭』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밭』을 번역한 번역가로서의 번역 후 기였다. 번역가는 자신이 가진 편견과 주류가 북한에 대해 가진 이미지에 대해 저항하면서 저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으나, 텍스트에는 이러한 노력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지은(2018)에 따르면, 북한 묘사에 있어 가난을 강조하는 것은 영미권에서 활용되는 북한을 재현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한편, 결텍스트를 통해 텍스트 분석 결과를 일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번역가는 번역 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전제하고 있음을 결텍스트를 통해 밝혔고, 작품 내의 어떤 목소리를 증폭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과정에서 작품 내 인물 및 사물의 내포된 긍정성과 부정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번역가의 판단에 따라 문화적 요소 중에서 직관적으로 목표 독자가 이해가 가능한 비유적 표현 등은 그대로 번역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목표 문화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번역하게 된 것이다.

주네트(Genette 1997: 346)는 결텍스트가 언제나 텍스트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니며, 텍스트와의 관계가 간접적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결텍스트는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거나 더 잘 수용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도 한다. 가령, 번역 시 실제로 적용하지 않은 접근법이라도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으로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당대에 유행하는 접근법 등을 활용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Batchelor 2018: 172). 번역가가 결텍스트에서 언급한 것과 다르게 텍스트 분석 결과가 나타난 것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번역 방향은 번역가의 무의식의 결과이거나, 혹은 번역가가 원저자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번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번역가의 개입 양상을 파편적으로 살피기보다 첨가, 삭제, 변경의 모든 양상을 하나의 작품 전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최근 한국 문학번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테보라 스미스의 번역 연구에 일조하였으며, 그의 번역물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확

인이 가능하였다. 둘째, 니다와 뫼의 분류를 집목한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비교적 단순한 분류로, 향후 번역 변이는 물론 번역 수업에서 다양한 번역 양상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내에서 드러나는 번역가 가시성을 분석한 다음 결텍스트에서 번역가가 직접 언급한 번역 의도 및 후기와 비교함으로써 텍스트 분석 결과를 번역가의 의도와 연관 지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는 번역 결과물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 원서와 번역서의 차이에 대해 고찰하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독자에게 수용될 때 실제 효과의 차이를 낳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독자 수용의 관점에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독자 반응을 확인하는 연구로 번역가의 개입이 실제 독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영어를 저본으로 하여 번역된 『고밭』의 번역서 변이를 영어 번역서와 비교하여 가시성의 차이를 고찰하면 매개 텍스트로서의 영어 번역의 역할을 다각도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신 (2016)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 -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을 중심으로」, 『동서문학비교저널』 37: 37-55.
- 도희운 (2018) 『붉은 세월』, 서울: 조감제닷컴.
- 미승혜 (2017) 「독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번역 비가시성 요소 분석 및 논의: 『채식주의자』와 영역본 *The Vegetarian*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1): 101-135.
- 박덕규 (2018) 「‘북한현실’의 문학적 형상화의 의미 - 『고밭』과 『잔혹한 선물』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7(3): 63-86.
- 박리라 (2019) 『출판번역의 파라텍스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심사 제안서.
- 신혜정 (2017) 「테버러 스미스(Deborah Smith)의 『채식주의자』 다시쓰기-번역 관점에서 본 문제점 및 향후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 17(10): 657-666.

- 이강선 (2016) 「고백에서 저백으로: 두 권의 『채식주의자』」, 『겨레어문학』 57: 277-312.
- 이동해 (2020) 『반디의 『고밭』 영역본을 통해 본 번역가의 가시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숙 (2018) 「사회주의 유행과 존엄한 선택 - 반디의 『고밭』 분석」, 『우리어문연구』 62: 141-174.
- 이인규 (2017)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학연구』 18(3): 173-205.
- 이지민 (2018) 「『채식주의자』 영역본 *The Vegetarian*의 삭제 전략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79-207.
- 이지은 (2018) 「유동하는 텍스트(fluid text)와 북한 재현 양상 - 반디의 『고밭』과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번역 *The Accusation*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13: 497-532.
- 전영선 (2014) 「북한문학의 현재와 미래」, 『한국문학과 예술』 14: 83-111.
- 조의연, 조숙희 (2019)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관과 ‘결여-향상’과 ‘해석-다양성’ 재번역의 관점에서 본 *The Vegetarian*」, 『번역학연구』 20(5): 197-216.
- Alvstad, Cecilia, Annjo K Greenall, Hanne Jansen and Kristiina Taivalkoski-Shilov (2017) ‘Introduction: Textual and Contextual voices of translation’, in Cecilia Alvstad, Annjo K Greenall, Hanne Yensen & sKristiina Taivalkoski-Shilov (eds) *Textual and Contextual Voices of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3-20.
- Batchelor, Kathryn (2018) *Translation and Paratext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Ayyad, Ahmad and Anthony Pym (2012) ‘Translator Interventions in Middle-East Peace Initiatives. Detours in the Roadmap?’ *Discourse of Translation*, 83-100.
- Barbara J. Zitwer Agency (2017) ‘Q+A With Deborah Smith, translator of BANDI’s *The Accusation*’, 3 March. Available at <http://barbarajzitweragency.com/news-main/2017/3/2/qa-with-deborah-smith-translator-of-bandis-the-accusation>.
- Barron, Michael (2017) ‘20 Translators Under 40: Deborah Smith’, *Culture Trip*, 3 March. Available at <https://theculturetrip.com/asia/south-korea/articles/20-literary-translators-under-40-deborah-smith/>.
- Carroll, Tobias (2016) ‘Deborah Smith on Translation, Han Kang, Bae Suah and Tilted Axis Press’, 10 November. Available at <https://vollbrooklyn.com/2016/11/10/deborah-smith-on-translating-han-kang-and-bae-suah-and-the-importance-of-translation/>.
- Catford, John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Oxford: Oxford UP.
- Genette, Gerard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 Jane E. Lew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y, Johnathan (2015) ‘Afterword: Studying Media with and without Paratexts’, in Lincoln Geraghty (ed.) *Popular Media Cultures*, London: Palgrave Macmillan, 230-237.
- Jansen, Hanne, and Anna Wegener (2013) ‘Multiple Translatorship’ in Hanne Jansen and Anna Wegener (eds) *Authorial and Editorial Voices in Translation, vol. 1: Collaborative Relationships between Authors, Translators, and Performers* [Vita Traductiva 2], Montreal: Editions québécoises de l’oeuvre, 1-39.
- Jansen, Hanne (2017) ‘Unraveling Multiple Translatorship through E-mail Correspondence,’ in Cecilia Alvstad, Annjo K Greenall, Hanne Jansen and Kristiina Taivalkoski-Shilov (eds) *Textual and Contextual Voices of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3-20.
- Koskinen, Kaisa (2000) *Beyond Ambivalence: Postmodernity and the Ethics of Translation*, Tampere: University of Tampere.
- Nida, Eugene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Niranjana, Tejaswini (1992) *Siting Translation: History, Post-structuralism, and the Colonial Contex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 Longman.
- Hermans, Theo (1996) 'The Translator's Voice in Translated Narrative', *Target* 8(1): 23-48.
- Lathey, Gillian (2015)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Montgomery, Charles (2014) 'Allie Park interviews translator Deborah Smith (The Vegetarian)', 15 June. Available at <http://www.ktlit.com/allie-park-interviews-translator-deborah-smith-the-vegetarian/>.
- Molina, Lucia and Amparo Hurtado-Albir (2002) 'Translation Techniques Revisited: A and Functionalist Approach', *Meta* 4: 498-512.
- PEN America (2017) 'The Pen Ten Series with Deborah Smith', 5 July. Available at <https://pen.org/pen-ten-deborah-smith/>.
- Pym, Anthony (2011) 'Translation Research Terms: A Tentative Glossary for Moments of Perplexity and Dispute', *Intercultural Studies Group*: 75-110.
- Pym, Anthony (2016) *Translation Solutions for Many Languages: Histories of a flawed dream*, London: Bloomsbury.
- Pym, Anthony (2018) 'A Typology of Translation Solutions',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30: 41-65.
- Saldanha, Gabriela and Sharon O'Brien (2013) *Research Methodologies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mith, Deborah (2017) 'Do North and South Korea speak the same language? Yes, but not quite', 24 February.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7/feb/24/north-south-korea-language-bandit-the-accusation-deborah-smith>.
- Solum, Kristina (2017) 'Translators, Editors, Publishers, and Critics: Multiple Translatorship in the Public Sphere', in Cecilia Alvstad, Annjo K Greenall, Hanne Jansen & Kristiina Taivalkoski-Shilov(eds) *Textual and Contextual Voices of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3-20.
- Solum, Kristina (2018) 'The Tacit Influence of the Copy-editor in Literary Translation', *Perspectives* 26(4): 543-559.
- The Society of Authors (2016) 'The Under Translated Language, with Deborah Smith', Available at <https://www.societyofauthors.org/News/Interviews/2016/The-Under-Translated-Language-with-Deborah-Smith>.
- Tymoczko, Maria (2000) 'Transla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The Translator* 6(1): 23-47.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Vinay, Jean-Paul and Jean Darbelnet (1958/1995) *Comparative Stylistics of French and English: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Trans. and ed. Juan, C. Sager and M. J. Hamel,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분석 대상 도서>
- 반디 (2014) 『고발』, 서울: 조감제닷컴.
- Smith, Deborah (2017) *The Accusation: Forbidden Stories from Inside North Korea*. London: Serpent's Tail. (원전: 반디. (2014). 『고발』, 서울: 조감제닷컴.)

[Abstract]

### The Translator's Visibility in Bandi's *The Accusation*

Lee, Dong-hae & Sung, Seung-e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plores the translator's visibility in *The Accusation*, the translation of a work by a writer with the pseudonym of Bandi, who currently lives in North Korea. Consisting of seven short stories of ordinary North Koreans, the source text has received keen interest around the world as only the manuscript was smuggled out to the world.

The translator of this novel, Deborah Smith, is generally known for her focus on readability and effect on the readers vis-a-vis faithfulness to the source text. This implies a certain level of translation shifts can be found in the translation as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Moreover, since so little is known about North Korea, some kind of translator intervention is deemed inevitable. These render the text a good example to track down the translator's visibility.

The translator's visibility is defined in this study as the translator intervention in content as a result of repeated patterns of translation shifts. The translator's visibility is explored by comparing the source and target texts to observe repeated translation shifts, which are labelled translator intervention. The text analysis is then cross-checked with the translator's paratexts—interviews and other written contributions.

The results revealed the translator's visibility on three points: emphasizing poverty in North Korea, explicating character images, and generalizing cultural references. This study also suggests a simple classification framework to identify translation shifts in target texts, which can be used for wider purposes such as observing translation strategies or translator style.

- ▶ Key Words: The translator's visibility, translation shift classification, translator intervention, North Korean novel, Deborah Smith
- ▶ 주제어: 번역가 가시성, 번역 변이 분류, 번역가의 개입, 북한 소설, 테보라 스미스 (Deborah Smith)

이동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석사졸업  
dongheylee@gmail.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과 이데올로기

성승은(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대학원 영어번역학과 부교수  
mishsung@hufs.ac.kr  
관심분야: 번역과 이데올로기, 이동문학번역, 기계번역

논문투고일: 2020년 5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2020년 5월 25일